

중국 전면적 투자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중국 인구구조의 문제점
2.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
3. ‘전면적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중국정부는 지난 35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통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구증가율 감소,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왜곡을 초래함.
 - 중국은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의 둔화세가 계속되면서 저출산 함정의 위험에 직면함.
 -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초고령화, 노령인구 빈곤화, 부양능력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켜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 소실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총 4단계에 걸쳐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인 조정의 완화를 거친 후 최근에는 ‘전면적 두자녀정책’을 시행함.
 -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30여 년간 실시되어옴.
 - 2013년 11월 제18기 3중 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두자녀정책’을 정식 시행함.
 - 2015년 10월 제18기 5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시행을 발표함.
-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존 제도의 엄격한 제약 틀에 있던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신생아 수의 증가, 영·유아 및 실버산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음.

1. 중국 인구구조의 문제점

■ 중국은 1980년대부터 35년간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하여 인구통제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 인구증가율 감소 △ 고령화 가속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 왜곡 현상을 야기함.

■ 중국의 인구수는 2031년 정점에 달한 후 ‘총인구 감소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며, 인구증가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 공식 집계된 중국 총 인구수는 13억 6,800만 명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지만, 오랜 기간 시행해온 ‘한자녀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가파른 둔화세를 보임.
 - 1950~60년대 2.5%이던 인구증가율은 1998년 1%대로 감소했고,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후인 2008년에 0.5%를 기록
-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1.67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구 세대교체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보다 현저히 미달된 수준으로, 중국은 저출산 함정의 위험에 빠지며 인구 보너스 소실에 직면
 - 출산율 하락은 1970~80년대는 정책적 요인, 1980~90년대는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요인,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발전에서 기인
 - 1960~80년 20년간 중국의 합계출산율¹⁾은 5.76명에서 2.71명으로 50% 정도 하락한 후, 1993년부터는 이미 인구대체수준 이하를 기록

그림 1.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3)

(단위: 명)



자료: The world bank.

1) 합계출산율은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이용. 즉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을 모두 합해서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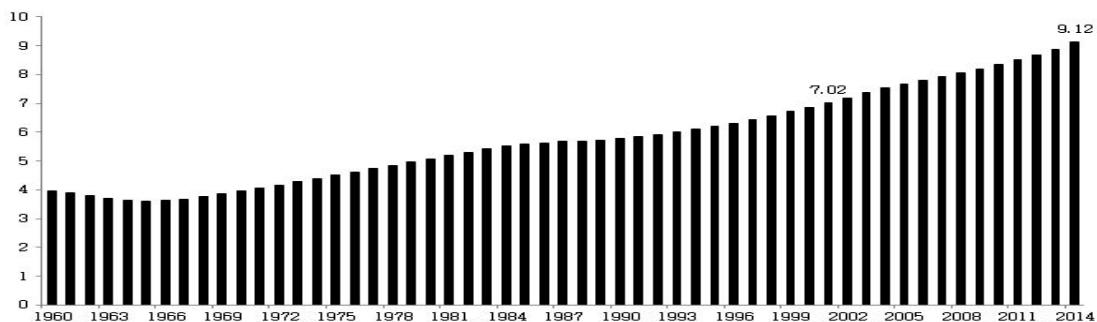
-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중국의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7년 뒤에는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관측
- 중국 인구는 2031년 14.5억 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예상
- 중국의 가임 여성(15~49세) 수 및 출산적령기(20~29세)의 여성 수는 2011년 각 3.8억 명, 1.1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

-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령화는 13·5규획(2016~2020) 기간에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
- 중국의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3.97%(1960년대) → 7.02%(2001년, 고령화 사회) → 9.12%(2014년 현재)로 빠르게 증가
- UN 세계인구전망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0.6% 상승률로 2020년(12.2%) → 2025년(14.4%, 고령 사회) → 2030년(17.5%) → 2035년(21.9%, 초고령 사회) → 2050년(29.3%)의 증가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

그림 2. 중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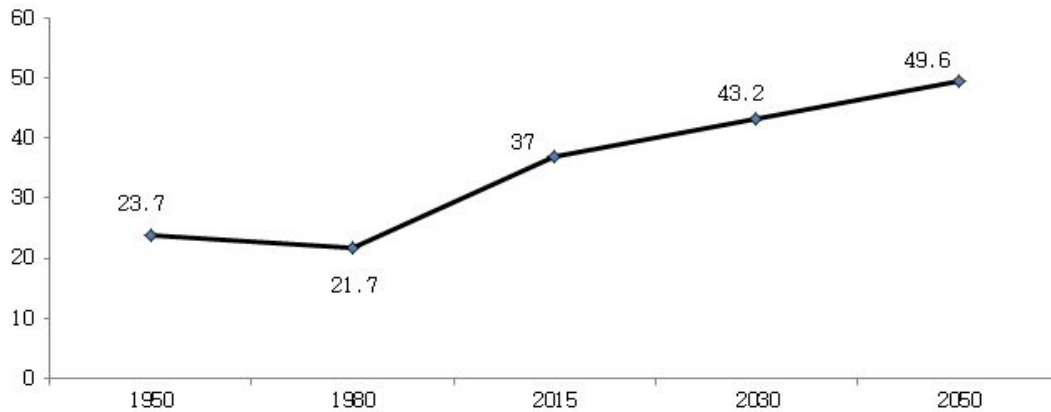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

- 2050년에는 인구 중위수²⁾가 49.6세로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으로 관측될 전망(그림 3 참고)
- 1980년대 21.7세에 불과했던 인구 중위수는 2015년 현재 37세, 2030년 43.2세, 2050년 49.6세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그림 3. 중국 인구의 중위수 연령 추세

(단위: 세)



자료: UN 인구 데이터.

■ 동시에 중국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 초고령화 △ 고령인구 빈곤화현상 △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함.

- 최근 중국 야오위둥(姚余栋) 중앙은행 금융연구원 원장은 “20년 후 중국에서 노인용 기저귀 수요가 유아용 기저귀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2035년 중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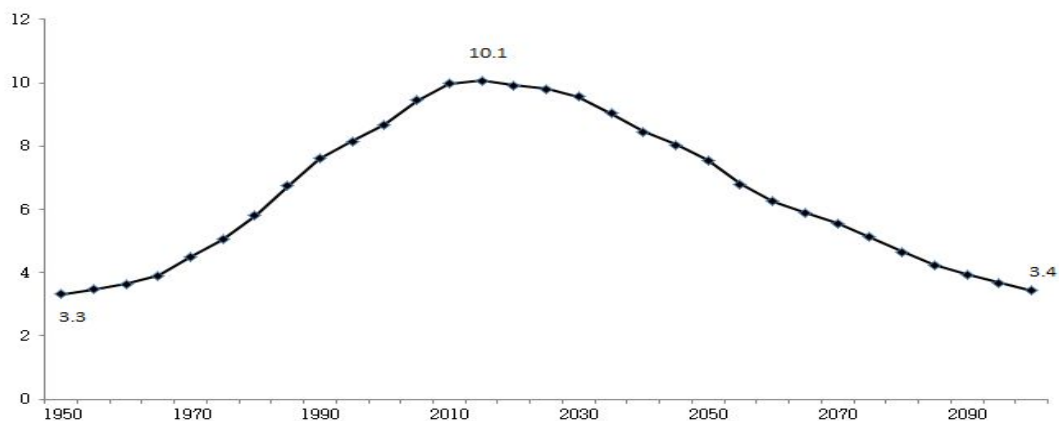
- 중국은 이미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중국의 고령인구 수는 매년 0.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일본의 20년간 증가율(1970~90년 연평균 0.25%, 1990~2010년 연평균 0.55%)보다 높은 편임.
- 2020년 중국의 고령인구는 12.2%(일본의 1990년 수준), 2030년에는 17.5%(일본의 2000년대 수준), 2040년에는 25.6%(일본의 2014년(22.7%) 수준을 상회)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경우 1인당 GDP가 8천 달러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빈곤 정도가 심각한 상황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가 3~6만 달러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일본은 4~5만 달러,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중국 노령사업발전보고(2013)』에 따르면, △ 중국의 독거노인 수는 1억 명을 초과하여 전체 노령인구의 50%에 달하고 △ 농촌에 남겨진 노인 수는 5천만 명 이상 △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3,750만 명에 육박함.

2)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인구 고령화 정도가 높음.

- 단 중국의 노인부양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의 소실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최고치인 약 10.1억 명(전체 인구대비 74%)을 기록한 후,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그림 4 참고)
 - 2020년에는 약 9.9억 명(71%), 2030년에는 약 9.6억 명(68%), 2040년에는 약 8.5억 명(61%), 2050년에는 약 7.6억 명(56%)까지 장기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

그림 4. 중국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 변화 추이

(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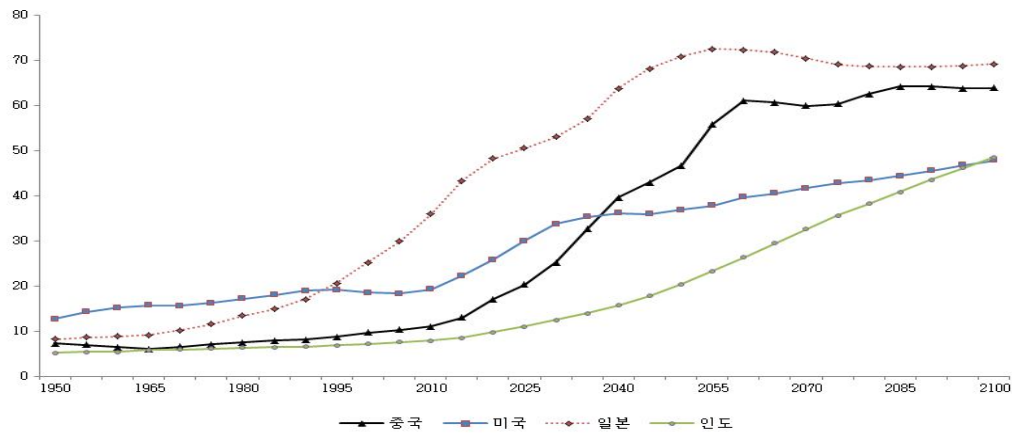


자료: UN 인구 데이터.

-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노년부양비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및 소비 감소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성장동력 악화 우려
 - 중국의 연 평균임금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2014년 4만 9,969위안에 달해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루이스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음.
 -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현재 13명으로, 아직까지는 미국(22.3명), 일본(43.3명)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2055년에는 55.9명으로 상승할 전망(그림 5 참고)
 -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그림 5. 각국 노년부양비 추이 비교

(단위: 명)



자료: UN 인구 데이터.

- 지금까지 중국은 산아제한정책 실시를 통해 미성년 부양비율을 통제함으로써 총 부양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경제발전은 이루어왔지만, 현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총 부양비율은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비율로, 중국은 지금까지 산아제한정책의 실시로 미성년 부양비율(14세 이하)을 낮춤으로써 총 부양비율을 관리
- 2014년 총 부양비율은 중국이 46.8%로, 인도 77%, 미국 68%, 세계 평균 7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정책은 중단기적 경제발전에는 효과적이나, 정책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노년 부양비율의 급격한 상승,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총 부양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202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감소, 연성장률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

2.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

가. 산아제한정책

- 지금까지 실시해온 중국의 인구관리정책은 크게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제한계획’ 등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표 3 참고).
- [출산장려책] 신중국 설립 당시 인구수가 비교적 적었던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1949년부터 1953년 중반까지 인구증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함.

- 이 시기 마오쩌둥의 인수론(人手論)³⁾과 전통적인 중국 농경사회의 다산다복(多产多福)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수가 급증
- 1950년부터 「부대(기관) 여성간부의 낙태제한에 관한 조치」, 「출산 억제 및 인공유산에 관한 잠정 방법」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개념 제창 및 행동 강화
- [출산억제정책] 국가의 한정된 자원 및 약한 국력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를 관리하기 위해 1956년 중앙정부는 <1956~1967년 전국농업발전요강>에서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밀집 지역에서 출산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계획적으로 출산할 것을 제창
- 첫 인구조사(1953년) 결과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중국은 인구 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
- 대약진 운동(1958년)의 실시로 인구조정시기를 놓치면서 인구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증가, 3년간(1962~65) 자연증가율 및 총 출산율이 신중국 수립 이후 최고치를 기록

표 1. 출산억제정책 실시 내용

일자	주요 내용
1953년 8월	정무원(政务院), 위생부 「피임 및 인공유산법」 비준
1955년 3월	「인구 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 발표, 산아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선전과 피임 교육 실시
1957년 2월	· 마오쩌둥, 최고 국무회의에서 ‘인류는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고 언급 · 마옌추(马寅初)는 인구문제와 관련한 ‘신인구론’ 발표
1962년 말	국무원, 「산아계획 제창에 관한 지시(关于认真提倡计划生育的指示)」 발표
1964년 1월	국무원 위생부의 모자위생국은 각 직할시와 성에 산아제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아제한기술 지도를 실시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실시로 산아제한정책의 실시는 무산되고, 인구정책의 부재와 인구 급증으로 농촌의 빈곤은 극에 달함.
1971년	국무원, 위생부, 상업부, 연료화학공업부 「산아제한업무 처리를 위한 보고」 문서 전달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창)

- [산아제한계획 실시] 1973년 중국 위생부는 ‘결혼은 늦게, 출산 간격은 길게, 출산 자녀수는 2명 미만(晚, 稀, 少)’이라는 산아제한방침을 정하고, 한자녀정책의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계획 발전을 추진함.
- 동시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인구증가에 관한 계획을 명시

3) “인간이 음식을 먹는 입은 하나지만 손은 두 개다.” 즉 인구가 많아지면 국력이 커지고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마오쩌둥의 주장.

표 2. 산아제한계획 실시 내용

일자	주요 내용
1973년	국무원, 산아제한정책영도소조(领导小组) 설립, '결혼은 늦게, 출산 간격은 길게, 출산 자녀수는 2명 미만(晚, 稀, 少)' 구호 제시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산아계획을 국가정책으로 명시
1979년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한 자녀 계획' 제기
1980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산아계획은 입법·행정·경제적인 조치의 일환이므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을 권장
1980년 9월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새로운 「혼인법」을 통과시키고, 제12조 규정에 '부부 양측은 산아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1982년 12월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 '국가는 산아계획을 추진하여 인구성장을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명시

- [엄격한 산아제한계획 실시] 1980년 9월, 당 중앙은 <인구성장조절에 관해 전체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발표하고, 20세기 말까지 중국 총인구를 12억 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국무원은 보다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표 3. 신중국 성립 이후 실시한 중국의 단계별 주요 인구정책

	시기	주요 특징	관련 정책 문건
1단계	1949~53	출산장려, 인구성장 촉진	「기관부대 여성간부의 낙태제한에 관한 조치」, 「출산억제제한 및 인공유산의 잠정방법」, 국가 관세청의 피임용 기구 및 약물 수입 금지
2단계	1954~69	출산억제, 제약정책 완화	「1956~1967년 전국농업발전요강」
3단계	1970~79	인구성장 억제, 산아제한계획 실시	「엄격한 산아계획 제창관 관련한 지시」, 제1회 산아계획 업무 보고회
4단계	1980~2010	산아제한계획 엄격 실시, 한자녀(独生子女)정책 제창	<인구성장조절에 관해>의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

자료: 중신증권연구부 자료 정리.

■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해줌.

- △ 부부가 재혼인 경우 한쪽은 한 명의 자녀가 있고 한쪽은 자녀가 없는 경우 △ 재혼 전 양쪽 모두 자녀가 있었으나 이혼하면서 모두 이전 배우자를 따라간 경우 △ 결혼 5년 이상의 불임 부부가 입양을 한 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우 △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 부부 중 한 사람이 광산, 해저탐사 등 위험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 부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첫째가 딸인 경우

■ 중국정부가 30여 년간 시행해온 산아제한정책은 인구증가 억제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둠.

-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100여년에 걸쳐 합계출산율을 50%로 감소시킨 데 비해,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의 시행으로 지난 30여년 만에 합계출산율을 1/3 수준으로 감소시킴.

나. 제한적 두자녀정책

- 중국당국은 ‘제한적인 두자녀정책(单独二孩)’의 시행을 통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 산아제한정책은 인구증가 통제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동시에 △ 급속한 고령화 △ 성비 불균형 △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야기
- 2007년부터 국가인구계획위원회의 위탁으로 각 연구기관들은 기존의 산아제한정책 재정비를 위한 연구에 착수
- 2010년 1월 6일,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는 <국가인구발전 ‘12·5’ 규획사고(의견수렴안)>를 발표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독자 혹은 독녀인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두자녀정책(单独二孩)’을 시범적으로 실시
- 2013년 11월 15일, 제18기 3중 전회에서 ‘한가구 한자녀정책’을 30여년 만에 폐지하고, 부부 중 한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두자녀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
 - 현재까지 신장(新疆) 이외의 29개 성(省)에서 모두 ‘제한적 두자녀정책’을 시행 중

다. 전면적 두자녀정책

-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 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자녀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
- 2015년 11월 3일 정식으로 발표한 ‘135규획’에서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 건설, 개혁심화,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당의 전반적인 전략의 틀 안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이 중점적으로 새롭게 추진할 총 14개의 전략⁴⁾을 제시
 - 14개 주요 추진전략 중 ‘인구발전전략’은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높여 내수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장이(张冀) 중국사회과학원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한 국가의 수입이 중상 수준에 도달하려면 인구 고령화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정책의 조정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가가 큰 과제”라고 언급하며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전면적 두자녀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도시화 추진, 내수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보임.

4) 14개 주요 추진 전략: △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개방 전략 △ 우수산업 우선(优进优出)전략 △ 전체적인 지역발전 전략 △ 인터넷 강국 전략 △ 국가 빅데이터 전략 △ 혁신기반발전전략 △ 농산물 생산력 강화전략 △ 군민융합발전전략 △ 자유무역지구전략(가속)실시 △ 취업우선전략 △ 식품안전전략 △ 인구발전전략 △ 인재우선발전(심화)전략 △ 국가보안 전략.

- 2013년 말 3중 전회 이후 중국의 출생률은 뚜렷하게 개선된 바 없고,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의 수 역시 2011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학자들이 정책 대상자(1,100여만 쌍) 중 2014년 200만 명의 부부가 둘째 출산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청자는 106.9만 쌍에 그침.

■ 중국이 두 자녀 출산을 완전 허용했다고 해서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은 향후에도 산아제한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유지하고 상황에 따른 개혁조치를 통해 총 인구수 및 인구구조 등을 조절해나갈 계획

- 인구의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계획출산의 기본적인 국책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인구발전 전략을 보다 완벽히 정비하여, 궁극적으로는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전면적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가. 영향 분석

■ 향후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시행으로 매년 600만 명의 새로운 인구증가가 기대됨(표 4 참고).

- 2014년 7월 10일 개최된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정례브리핑에서는 ‘현재 집계된 중국의 한자녀 가정 1.5억 가구 중 80%인 9,000만 가정이 두 번째 자녀를 희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며, ‘전면적 두자녀정책’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관측
 - 자이전우(翟振武 2015)는 제한적 두자녀정책의 정식 시행으로 5년 동안 최고 500만 명의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⁵⁾
- 자이전우(翟振武 2015)와 차오샤오춘(乔晓春 2014)은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시행으로 ‘제한적 두자녀정책’보다 수혜자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
 - [제한적 두자녀정책 대상 조건] △ 부부 중 한 명이 독자 혹은 독녀인 가정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 ‘한자녀’ 혹은 ‘한자녀반(一孩半, 첫째가 딸인 경우 두 자녀 가능)’ 정책 시행지에 속하거나 자녀가 남자아이 한 명인 경우
 -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대상 조건] △ 일반 가정(부부가 독자 혹은 독녀일 필요 없음)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 ‘한자녀’ 혹은 ‘한자녀반’ 정책 시행지에 속하거나 자녀가 남자아이 한 명인 경우

5) 자이전우는 연구를 통해 2014년 이래 매월 8~10만 정도의 가구가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신청했으며, 정책 시행 1년째 되는 2015년 3월 말에는 총 120만 명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 내용을 발표.

표 4. 전면적 두자녀정책 시행에 따른 예측 연구

저자	예측 방법	단기 내 증가 예상 신생아 수(년)
王广州(2015)	Stochastic population micro-simulation model	600만
乔晓春(2015)	중국 인구 및 발전연구센터의 2013년 전국 출산의향 연구조사 데이터 기반 연구	600~700만
王军(2015)	2013년 중국 가정 행복 관련 핫이슈 연구조사 데이 터 기반 연구	324만 이내
黄文政	-	500만 이내
任远(2015)	‘신생아-부모 1세대 인구 비교’ 분석 모형	100~200만

자료: 중신증권연구부 자료 정리.

■ 지금까지 산아제한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이행해야만 했던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 및 국유기업 종사자]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할 경우, 비(非)종사자들이 벌금 선에서 마무리되던 것에 반해 이들은 사직(辭職)과 같이 비교적 엄격한 처벌을 받아옴.
-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 농촌에 비해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등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의 시행을 요구받아옴(표 5 참고).

표 5. 중국 각 성 도시화율 비교

지역(省)	도시화율(%)	지역(省)	도시화율(%)	지역(省)	도시화율(%)
상하이	89.60	후베이	54.51	안후이	47.86
베이징	86.30	지린	54.20	쓰촨	44.90
톈진	82.01	산둥	53.75	광시	44.81
광둥	67.76	하이난	52.74	신장	44.47
랴오닝	66.45	산시(山西)	52.56	허난	43.80
장쑤	64.11	닝샤	52.01	윈난	40.48
저장	64.00	산시(陝西)	51.31	간쑤	40.13
푸젠	60.77	장시	48.87	구이저우	37.83
네이멍구	58.71	칭하이	48.51	시장(티베트)	23.71
충칭	58.34	허베이	48.12		
헤이룽장	57.40	후난	47.96		

자료: WIND, 중신증권연구부 자료 정리.

- [일부 농촌지역] 2014년 이전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한자녀반정책’을 시행해오거나 비교적 관대하게 정책을 시행했던 것에 비해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쓰촨, 충칭 등 6개 성(省)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아옴(표 6 참고).

표 6. 2014년 이전 시행된 산아제한정책 및 시행 지역

정책 분류	시행 대상지역
한자녀(一孩)정책	대부분 도시 지역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쓰촨, 충칭 등 6개 성(省)의 농촌지역
한자녀반(一孩半)정책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구이저우, 산시(陝西), 간쑤 등 19개 성의 농촌지역
두자녀(二孩)정책	모든 성(省): 부부 양측이 모두 독자 혹은 독녀일 경우 두 자녀 가능 하이난, 윈난, 칭하이, 닝샤, 신장 등 5개 성(省): 농촌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두 자녀 허용 톈진, 랴오닝, 지린, 상하이, 장쑤, 푸젠, 안후이 등 7개 성(省): 농촌지역 부부 중 한 명이 독자 혹은 독녀일 경우 두 자녀 허용
세자녀(三孩)정책	칭하이, 닝샤, 신장, 쓰촨, 간쑤 등지 소수민족 지역내 농축산민 하이난, 네이멍구 등 기존 두 자녀를 허용해왔던 소수민족 지역내 농축산민 윈난 변경지역과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농축산민 헤이룽장의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특수정책	티베트자치구: 자체 정책 장족(藏族)지역 거주민: 두 자녀 허용 장족 및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농축산민: 제한 없음

자료: WIND, 중신증권연구부 자료 정리.

■ 하지만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시행은 신생아 수 증가 등 일차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전체인구 수(총량)와 같은 장기적 혹은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UN 세계인구전망보고서(2015)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영향으로 새롭게 증가할 3,500만 명은 총 인구 수의 2.5%(2015년 중국 총인구 13.76억 명)에 불과해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단기적으로 노동력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2035년에는 노동력이 4.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UN보고서(2015)에 따르면, 출산율이 불변한다는 가정하에 2035년 중국의 총생산가능인구(15~59세) 수는 약 8억 명 정도로 예측되며, 정책 영향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인구수는 총생산가능인구의 4.5%에 불과함.
- 또한 정책 시행으로 고령화율을 0.5~1%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본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나. 새로운 투자기회의 창출

■ 새로운 인구의 증가로 영유아 시장의 발달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유아 소비시장은 연령에 따라 크게 △ 출산(生) △ 영유아(養) △ 교육(育) 등 3가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7 참고).⁶⁾

- 출산(生): 소비시장은 주로 임신기간의 용품 및 출산비용으로 나뉘며, 정책의 시행으로 최대 930억 위안 정도 규모의 시장 확장 기대
 - 신랑친즈중심(新浪亲子中心)에서 실시한 ‘육아비용조사’에 따르면, 임신기간 동안 소비되는 총 10,500위안⁷⁾ 및 기본적인 출산비용⁸⁾을 합하면 신생아 한 명이 출생하기 전 사용하는 비용은 약 15,500위안 정도로 추계
 - 향후 매년 2,3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인구 증가 중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시행으로 인한 증가는 600만 명으로, 해당 시장은 총 930억 위안 정도의 확장 가능성 존재
- 영유아(养): 주로 아동용 약품, 영·유아 분유 및 기저귀 제품 소비시장으로 나뉘며, 최대 945억 위안 정도 규모의 시장 확대 예상
 - [아동용 약품시장] 현재 총 487억 위안 이상의 규모로,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30%의 인구증가는 아동약품 시장 총 수요를 45% 증가시켜, 총 300억 위안 규모의 시장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영유아 분유제품 시장] 2010~14년 분유제품 시장의 규모는 전지분유(312.4억 위안), 탈지분유(363.8억 위안), 인스턴트 분유(471.1억 위안), 가당분유(563.2억 위안), 영유아용 및 특별조제분유(682.7억 위안)로, 연평균 21.7%를 기록했는데, 정책의 시행으로 이용자 수 30% 증가, 시장 규모 58% 성장이 기대되면서 총 480억 위안의 시장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기저귀 제품 시장] 2013년에 비해 16% 성장한 2014년의 기저귀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15%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정책의 실시로 인한 2016년 시장 규모 성장률을 49.5%로 보고, 총 165억 위안의 시장 확대를 관측
- 교육(育): 아동복, 장난감, 도서제품, 유아교육 등이 주 소비대상이며, 정책의 실시로 매 년 1,652억 위안의 시장 확대 기대
 - [아동복 시장] 국가통계국의 『2012~2015년 아동복산업보고』에 따르면, 시장의 연 성장률은 25~30%로 2015년 1,400억 위안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평균 소비의 증가와 정책 시행 등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 2016년에는 약 65.8% 성장하여 420억 위안 정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장난감 시장] 2014년 중국 장난감 산업의 매출액은 1964.9억 위안(누적 동기대비 12.2% 성장), 총이익은 98.1억 위안(누적 동기대비 12.4%)으로, 2015년 시장 규모는 646억 위안으로 예측되며 정책 시행 후 39.1%의 성장률로 시장규모의 확대는 3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관측
 - [도서 시장] 2015년 0~6세 유아 인구수가 1.26억 명, 전체 규모는 453.6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교육(育)시장 내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가 7%씩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책 시행 후 도서 시장의 전체 규모는 39.1%의 성장률을 기록, 총 177억 위안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유아교육 시장] 주로 0~8세 아동의 교육비용을 가리키며, 2014년 소비시장 규모가 1,198억 위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이 18%였던 것을 감안, 정책 실시 후 시장 확대 규모 정도를 예측해 보면 53.4%의 성장률로 755억 위안 정도임.

6) 『政策研究与A股策略专题：“全面二孩”政策渐近，催化养育主线投资机会』，刘斌，中信证券。（2015. 10. 10）

7) 10,500위안=임신 전 테스트비(400위안)+출산 전 검사비용(1,000위안)+영양보조제(3,000위안)+임신복 방사선 차단 보호복(放射服)(2,000위안)+영아용품(3,000위안)+임산부 교육프로그램(1,000위안)+태교(100위안) 등.

8) 기본적인 비용(1,500~3,000위안) 및 부대 서비스 비용 등을 합산하면 총 5,000위안 정도로 추산.

표 7. 영유아 소비시장 연령별 분류

연령	해당 시장	세부 소비 품목
임신기간 및 0세	출산(生)	출산 준비에 필요한 검사 및 시설과 같은 의료서비스 영역, 임신부 영양제 및 영아용품 등
0~6세	(0~3세) 영유아(养)	영아 식품, 보건용품, 영아용품 등
	(3~6세) 영유아(养), 교육(育)	영아 및 아동 소비식품, 오락용 제품, 의류, 조기교육 등
6~12세	교육(育)	아동교육 서비스, 학습용품 등

■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중국 내 실버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

- 실버산업은 크게 △생활용품 △의료헬스 △여가 및 오락 등 세 가지 시장으로 분류 가능
 - [생활용품] 의식주 해결과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필수품 소비 위주의 산업
 - [의료헬스] 노령인구 층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약품 및 의료기기 등과 진료서비스, 건강관리,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 산업
 - [여가 및 오락] 여행, 문화소비 등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관련한 문화 및 레저서비스 산업
- 중국 『노령산업 발전 보고서(2014)』에 따르면, 중국 노령인구 잠재소비력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은 가구 1인당 소득과 자산소득, 정부 및 사회보장금 등을 합산추계
 - 시니어 세대(50대)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잠재소비력은 같은 기간 5조 위안에서 133조 위안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3%에서 2050년 33.6%로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전체 산업시장의 1/3이 실버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됨. KIEP

<참고자료>

- 『把握人口周期下的两大投资机会』, 『中信专题报告』, (2015년10월)
- 『“全面二孩”政策渐近催化养老主线投资机会』, 『中信专题报告』, (2015년10월)
- 『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2014』,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년11월)
- 『“单独二孩”生育政策的实施会带来什么?—2013年生育意愿调查数据中的一些发现』, 2014年, 乔晓春, 『人口与计划生育』,
- 『从“单独二孩”政策执行效果看未来生育政策的选择』, 2015年, 乔晓春, 『中国人口科学』,
- 『立即全面放开二胎政策的人口学后果分析』, 2014年, 翟振武, 张现苓, 靳永爱, 『人口研究』,
- 『“单独二孩”政策的回顾与展望』, 翟振武, 李龙, 『中国人口学会官网』, (2015년1월)
- UN 인구통계 사이트, <http://www.un.org/esa/population/>.
- 세계은행 통계 사이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권오은(oekwon325@ruc.edu.cn)